

## 동북아 IT 거점도시 서울의 선택

---

### 서울의 동북아 IT 거점도시 육성 필요성

-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서울 대도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임
  - 다국적 기업 등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무국경 경제(borderless economy)의 가속화에 따라 국가보다는 대도시의 역할이 더 중요. 그 결과 대도시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임
  - 따라서 서울을 동북아의 경제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차세대 성장산업인 IT산업을 육성하고, 서울을 『동북아 IT 거점도시』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함
  - 금융 및 물류와 더불어 참여정부의 『동북아 IT 중심추진 구상』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『동북아 IT 거점도시』의 탄생여부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, 그 핵심에 서울 대도시의 역할이 있음
- 서울은 『동북아 IT 거점도시』 육성에 유리한 고부가가치의 IT서비스업이 발달함
  - IT산업은 제조업, 서비스업, 전기통신업, 유통업으로 세분할 수 있는데, 서울은 IT산업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큰 IT서비스업 비중이 높음
  - IT서비스업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대도시 경제구조의 변화에 중심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음
  - 실제로 서울은 IT서비스업의 메카이며 인큐베이터 역할도 수행하고 있으며, 경기도 지역은 IT제조업 위주로 발달함
  - 따라서 서울의 IT서비스업과 경기도의 IT제조업간 역할분담을 통해 서울이 『동북아 IT 거점도시』로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님

## 서울 IT산업의 현황 및 잠재력

### ○ 서울 IT산업의 규모와 입지

- 2001년 서울 IT산업은 33,351개 업체에 379,055명의 종사자가 있는 바, 이는 전체 산업의 4.6%(고용자수로는 9.8%)에 해당하는 산업규모임
- 이 가운데 IT서비스업은 20,056개(228,364명)로 IT제조업(2,375개), IT도소매업(10,031개), IT전기통신업(889개)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를 보이고 있음
- 지역적으로 볼 때, 종로·중구의 도심권역과 강남·서초의 동남권역이 각각 12,775개, 8,329개로 가장 많은 IT산업 업체가 집적해 있고, 다음으로 서남권과 동북권이 각각 6,015개, 4,092개를 나타내고 있음
- IT서비스업의 경우 도심권역과 동남권역에 주로 입지하고, IT도소매업은 도심권에 주로 입지하고, IT제조업은 구로·금천의 서남권역에 주로 입지함

### ○ 서울 IT산업의 지원시설

- 서울은 대학 및 연구소, 응용 연구기관 등 전국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1/4을 차지하며, IT관련 대학부설 연구소도 90여개 분포함
-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벤처창업시설이 73개, 창업보육 및 지원센터가 48개로 매우 풍부하게 집적하고 있음. 창업보육시설을 제외한 많은 지원시설이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음
- 또한 서울은 마케팅·유통, 교육·훈련기관과 같은 지원기관이 풍부하게 입지해 있어 벤처기업에게 도움을 주고 있음

○ 서울 IT산업의 성장잠재력

- 서울시 전산업 대비 IT산업의 비중을 살펴보면, 업체수 기준으로 1993년 2.8%에서 1997년 3.5% 그리고 2001년 4.6%등으로 그 비중의 증가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. 종사자수 기준 변화에서는 1993년 서울시 대비 6.3%에서 2001년 9.8%로 큰 증가폭을 보임
- 아울러, IT산업의 발전 토대가 되는 지원시설이 풍부하고, 특히 교통여건이 편리한 지하철 2호선을 따라 분포함

동경과 북경대도시의 IT산업 육성 동향

○ 동경의 비트벨리와 이케부쿠로, 아키하바라

- 동경 IT산업은 서울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선인 JR야마노테선(山手線)을 따라 마로노우치, 아키하바라, 이케부쿠로, 시부야에 집적해서 발달
- 이들 지역에 다양한 문화공간, 업무공간, 각종 상업활동이 집적되어 있으며, 각 지역간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는 소프트IT, 콘텐츠, 애니메이션, 영상산업 클러스터가 형성됨

○ 북경 중관촌(中關村동) 과학기술원구

- 베이징시 서북부의 하이디엔취(海澱區) 주변 시가지지역의 약 367.5km<sup>2</sup>. 행정구역상 海澱園(340km<sup>2</sup>), 豊臺園, 昌平園, 北京電子城, 北京經濟技術開發區포함
- 중국 53개 첨단산업개발구 중에서 소프트웨어, 인터넷, IT관련 R&D기능을 가진 최초이자 최대의 첨단기술개발구임. 2000년말 약 8,224여개사가 입주, 총매출이 99년에 849억 1,000만 위안(약 12조 1,000억원)임

○ 동경과 북경의 IT산업 시사점

- IT관련 산업의 집적과 종사자들 네트워크 형성이 중요함. 네트워크의 주체는 동경처럼 민간이 주체가 되거나, 북경처럼 정부가 될 수 있음
- 동경과 북경 모두 생산업체와 판매업체간 근접성을 바탕으로 성장함. 연구-기획-생산-판매가 집적되면 상호 시너지효과로 성장이 용이함
- 식당, 은행, 전문사무용품, 백화점 등 다양한 문화 및 도시서비스시설이 집적하여 적절한 비즈니스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
- IT산업, 특히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콘텐츠 개발 등 IT서비스업은 오피스공간을 필요로 하는 바, 동경과 북경의 경우처럼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양질의 오피스 공간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함

### 동북아 IT거점도시로서 서울의 육성방안

#### ○ 육성방향 : IT산업 클러스터 육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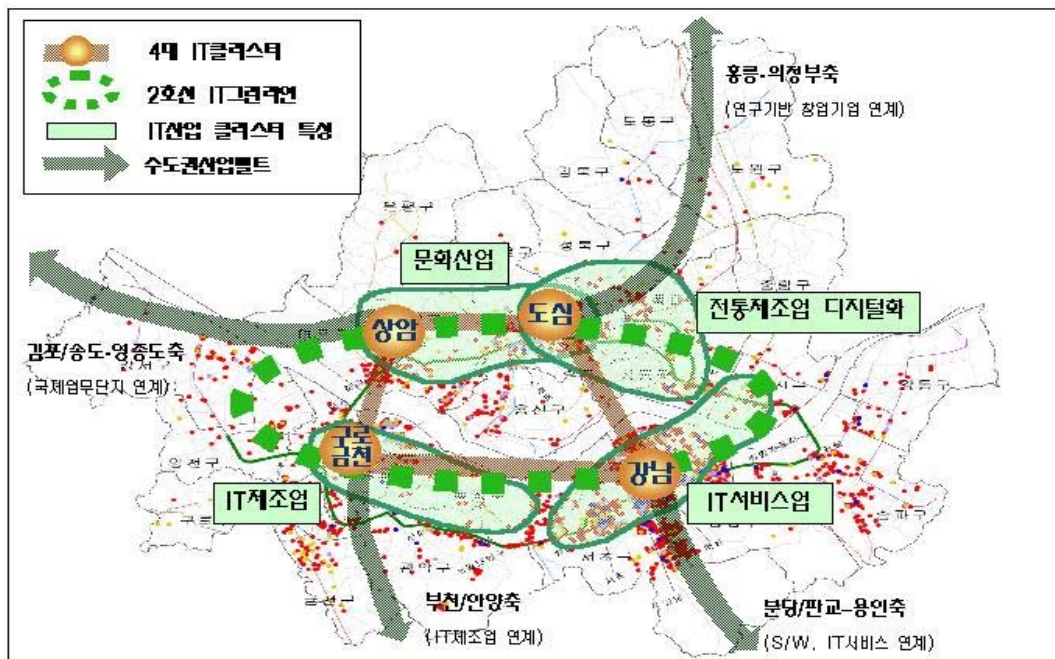
-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더불어 클러스터(cluster)가 국가나 도시의 사활을 좌우하는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등장함에 따라, 산업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이 클러스터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음
- IT산업 클러스터는 전문화된 IT산업관련 구성원들의 공간적 집적과 연계 및 협력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체계임

#### ○ 육성전략 모색 : 마이클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 틀에 입각

- 다이아몬드 이론에서는 산업클러스터 발전의 조건으로 ①생산요소 조건(부가가치의 원천은 무엇인가), ②수요조건(까다로운 고객이 존재하는가), ③관련지원 산업의 존재조건(강한 관련 지원산업이 존재하는가), ④기업간의 경쟁조건(좋은 라이벌이 있을까)을 제시함
- IT산업 클러스터 창조를 위해서는 ‘행정의 역할’도 중요한 바, 위 4가지 조건에 ⑤행정조건을 추가하여 육성전략을 모색함

- 육성전략 1 : 『IT트라이앵글 구축』을 통한 IT신산업 창출
  - 창조적 아이디어가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, 반대로 자본이나 기술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, 이들이 상호 연계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고 산업화하기 위하여 예술가-기술자-자본가 부문간 컨소시엄을 구축하여 교류하게 함
  - 이러한 3자 네트워크 조직인 ‘IT트라이앵글’을 구축하여, 아이디어 및 기술의 개발지원, 엔젤 등 창업지원형 자본기반 강화, 자금지원 능력 확대 등을 시행함.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관련 종사자, 대학 및 연구소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 있음
  
- 육성전략 2 : 『소비자 교류공간 조성』을 통한 시장경쟁력 강화
  - 세련되고 까다로운 소비자의 존재가 ‘IT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’에 중요한 인자이므로, 소비자에게 IT상품에 대한 평가와 이들의 수요과약을 위한 『소비자 교류공간 조성』이 필요함
  - 소비자 교류공간 내에 IT상품의 전시·판매 및 교류기능 확충
  - 그 결과 생산자 중심의 『IT트라이앵글 만남의 광장』과 소비자 중심의 『소비자 교류공간 조성』을 통합하여 하나의 공간에 설치 가능
  -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의 장소에서 직접 상호 정보를 주고 받게 하여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유도할 수 있을 것임
  
- 육성전략 3 : 『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』으로 관련 지원산업 육성
  - 기업하기 편리하도록 교통여건 및 환경친화적 공간조성을 지원하고, 쾌적하고 편리한 오피스 공간을 제공함(오피스, 오피스텔, SOHO)
  - IT산업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24시간 활용할 수 있는 생활편익시설을 제공함

- 육성전략 4 : 『서울 IT 그린라인 구축』을 통한 서울 IT클러스터 연계
  - 지하철 2호선을 따라 형성되고 있는 IT클러스터를 연계하는 IT 그린라인을 구축함. 그린라인 상에 형성되어 있는 ①강남, 서초 IT클러스터, ②구로, 영등포 IT클러스터, ③상암DMC IT클러스터, ④청계천 도심 IT클러스터를 집중 육성
  - IT그린라인을 토대로 수도권과 연계되는 4개 IT네트워크를 구상함. 즉, ①홍릉-강북-의정부축은 연구와 창업을 연계하는 벨트로, ②구로(금천)-부천-안양축은 IT제조업과 연계하는 벨트로, ③상암-마곡-김포(송도)-영종도축은 국제업무단지와 연계하는 벨트로, ④강남-분당(판교)-용인축은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와 연계하는 벨트로 조성
  - 서울 IT 그린라인 상에 동북아의 IT관련 인력, 자본, 기술 등이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‘동북아 IT 교류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’을 개발함



[그림] 서울 IT그린라인과 수도권 IT산업 집적지간 네트워크 구상

- 육성전략 5 : 『서울 IT그린라인 브랜딩』을 위한 행정지원 제고
  - 클러스터 브랜딩(cluster branding)은 개별업체의 마케팅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, 개별브랜드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옴
  - 서울 IT그린라인 상에 소재한 선도적 IT클러스터에 대해 그 특성을 부각시키고 차별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함
  - 아울러 서울 IT그린라인을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여, 서울 IT그린라인에 세계적인 IT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도록 함

신창호 . 서울경제연구센터 실장  
sch@sdi.re.kr